

가네유

옛 요정 가네유는 과거 노시로 목재 회사가 고객과 정치인을 접대하기 위해 영빈관으로 이용했던 곳입니다. 1890 년에 문을 열었지만, 현재 건물은 1937 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. 1998 년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.

20 세기 초 노시로 마을은 이 지역 목재 산업의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. 고가의 아키타 삼나무는 요네시로강 하구에서 일본 전국 각지로 출하되었습니다. 가네유는 목재 산업의 전성기에 지어졌으며, 호화로운 내부와 훌륭한 목공예품은 방문객들에게 현지 목재의 품질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. 아키타 삼나무는 건축물의 구조와 장식 등 모든 곳에 사용되었습니다.

몇몇 방의 천장판은 큰 삼나무를 사용한 것입니다. 1 층의 히로마(연회장)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잘라 만든 판자가 5 장 있는데, 이 판자의 길이는 9m 이상이며 폭은 1m 입니다. 2 층의 오히로마(대연회장)에는 삼나무 거목의 뿌리를 잘라 만든 200m²의 격자천장이 있습니다. 1 층의 다른 방에는 건물이 완공되기 불과 몇 년 전에 노시로에서 고안되었으며,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하리마사 합판(라왕판에 붙이는 삼나무 베니어판)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 식사용 개인실과 도코노마에는 여러 정교한 수공예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. 건물 전체에서는 지속과 번영을 상징하는 ‘송죽매(松竹梅)’ 라는 세 가지 심벌을 볼 수 있는데, 이 심벌들은 아름다운 장식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